

# 모래위에 세워진 養鷄産業

— 적극적 불황타개책 아쉽다 —

## 노 영 한

작년 10월부터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한 채란 양계업계는 아직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여러번 양계업계에 불황은 있었지만 그 기간과 깊이가 이번처럼 깊거나 길지는 않았다.

표 1을 보면 80년도의 계란값은 79년 보다 평균 25% 정도 상승하여 (79년 평균 대란 가격은 25원62전이고 80년은 31원94전) 문의 한이 보기에는 그런데로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표 1. 대란가격 월별 추세 (서울지역 1979~81년 )

(단위 : 원/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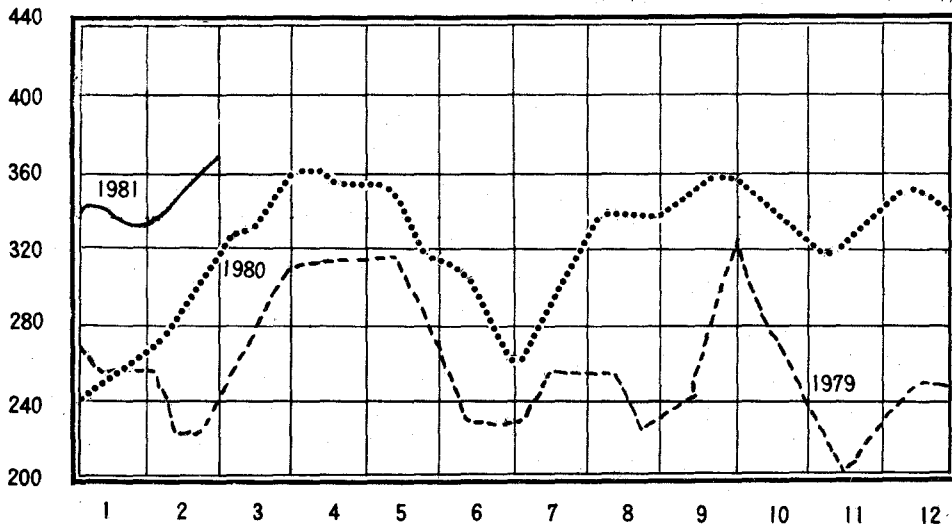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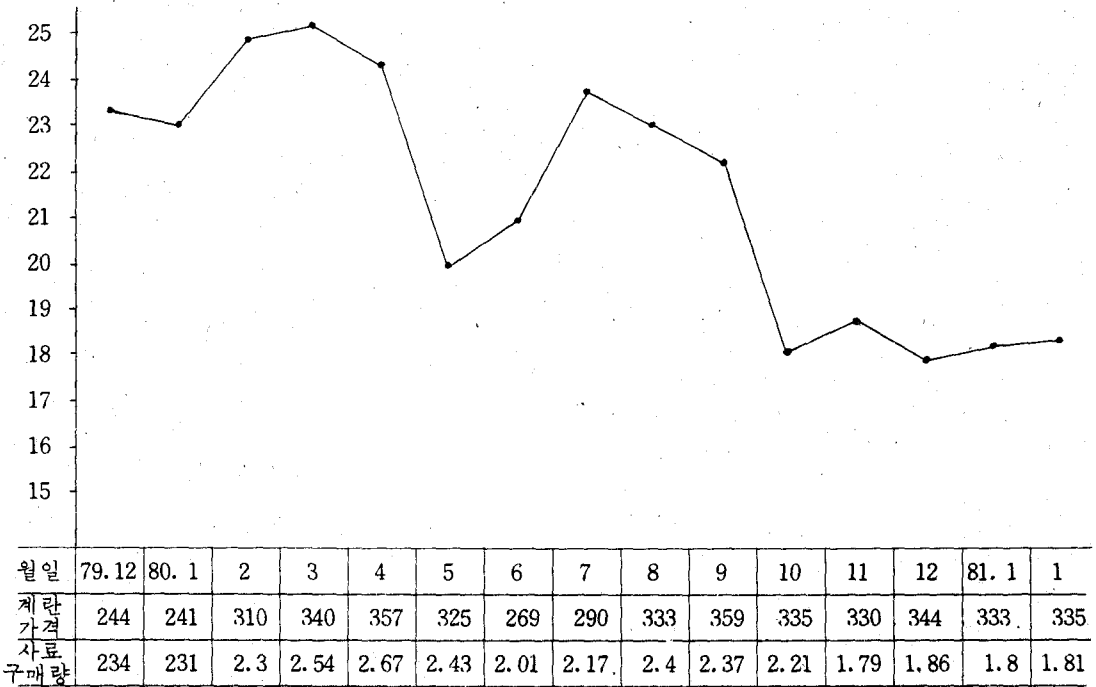


표 2. 대란 10개로 구입할 수 있는 사료량 (kg)



## 폭등한 생산비

그러나 양계 경영비의 70%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인상이 경영을 얼마나 압박하는지 표 2가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계란 1개를 생산하는데 약 160~170g 정도의 사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계란 1개를 팔아서 작년 10월 이후는 겨우 먹을 사료밖에 안된다는 말이 된다.

계란 1개로 살 수 있는 사료량이 작년 1월은 179 12월은 186g 금년 1월과 2월은 181g으로 겨우 사료 사먹일 정도밖에 안됨을 알 수 있다.

육성 상각비가 나오지 않으니 후보계를 육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전에 있는 L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약 12만 수의 산란계 규모인데 (후보계 포함) 작년 10월부터 월평균 2천만원씩 적자를 보아왔습니다. 이 것은 사료비 인건비 약품비 전기료 등만 계산한 것입니다.

2월말 현재 계산해 보니 약 1억 2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란 양계업계의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란값이 60원까지 올라주어도 1년간은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설개선이냐 다른 분야에는 신경을 쓸 수도 없고 다만 어음 막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B 사장은 채란 양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한다.

“계란은 팔아서 인건비는 고사하고 사료값 주기에도 부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계란 등급 문제로 상인들이 계란을 가져가지 않아 계란이 체화되어 쌓아 놓을 곳이 없습니다.

사료값은 주어야 되겠고 정말 큰일입니다.”

### 적자! 적자! 적자!

이해가 가는 말이다.

금년초에 계란이 체화되자 양계업계는 물론 사료공장의 자금사정도 크게 악화되고 부화장, 동물 약품업체, 양계기계 기구 등 축산 모든 관련 분야가 숨이 막히는 듯한 자금 압박을 느껴왔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사료중 산란계 사료가 32.5%나 차지하고 있고 육추사료는 합해서 41%나 된다.

바꾸어 말하면 채란양계 경기에 따라 사료

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형편도 결정된다는 말이된다.

지난 6년간 채란 양계업은 그런대로 안정되어 왔고 이 때문에 부로일어나 양돈경기가 그간 나쁠때에도 이번처럼 축산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심하게 느끼지는 않았었다.

양계업계의 자금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다음 표가 말해준다

표 5. 월별 육추수 대금 결재 추정액

월별	81 1월	2	3	4	5
금액 억원	139	396	375	256	373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 공장의 자금 사정이 2월부터 5월까지의 계속 어려움을 잘 나타내 주고있다.

지금까지의 축산 업계에 불황이 온 것이나 불황중에서도 견디어 온 것도 따지고 보면 사료 공장들이 양축가들에 약 1000억으로 추산되는 사료값을 신용 또는 담보를 잡고 무이

표 3. 전년도 누계실적과의 비교

구 분	육 추	산 란	육 계	소 계	양 돈	낙 농	비 육	기 타	계
80.1-12(A)	295,790	1,126,469	449,593	1,871,852	769,357	513,541	306,333	1,335	3,462,418
79.1-12(B)	330,230	1,111,449	571,890	2,043,569	1,129,895	438,512	266,206	2,053	3,880,235
대비(A/B)	89.5	98.7	78.6	91.6	68.1	117.1	115.1	65.0	89.2

표 4. 소속별 배합사료 생산구성비

(단위 : M/T)

구 분	육 추	산 란	육 계	소 계	양 돈	낙 농	비 육	기 타	계
농 협	누 계 11,468	44,935	10,808	67,208	65,023	121,237	201,851	1,231	456,550
	구성비 2.5	9.8	2.4	14.7	14.2	26.6	44.2	0.3	100
사 협	누 계 284,325	1,081,535	348,785	1,804,645	704,333	392,304	104,482	104	3,005,868
	구성비 9.5	35.9	11.6	60.0	23.4	13.1	3.5	-	100
계	누 계 295,790	1,126,470	449,593	1,871,853	769,356	513,541	306,333	1,335	3,462,418
	구성비 8.5	32.5	13.0	54.1	22.2	14.8	8.8	-	100

자로 (?) 용자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부터는 이들 용자금을 회수하여야 될 시기가 되었고 신규 용자도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월400 억 (2월 396 억)이라는 돈은 1개 사료 공장당 약 10억 이라는 계산이되고 이는 사료공장 평균 외형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5월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며 그 만큼 업계의 자금 사정은 어렵게 마련이다.

최근 배합사료 유통과정에서 현금 거래일 경우 13% 이상을 할인판매 한다는 말도 있으나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표현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계 산물의 총 외형액이 80년을 보면 계란 4485백만개×32원=14,352 천만원 닭고기 86,000,000×100 원=860 억 원으로 약 2천 3백억으로 추산되는데 이 외형액의 5~10%가 사료외상 이자로 지급된다고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다.

우리 업계는 2백억 정도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셈이다.

## 안정기금 필요

79년 에그펠프 (계란 분말)가 수입되어 공업용으로 사용되어 한때 생산자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당국에서는 곧 관세를 80%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일단 수입의 물결을 막는 벽을 높게 쌓아 놓았다.

그러나 이 벽이 수입을 완전히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바에야 생산자들은 난분의 완전 수입 금지 보다는 수입창구를 일원화하여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쇠고기 수입시 안정기금을 부과하는 것 같이 난분 수입 때 관세는 당초대로 내리고 80%정도의 안정기금을 생산자 단

체로 하여금 안정기금으로 적립 하였다가, 지난 1월달 같이 체화될때 수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경험에서 약 250 만개의 수매로 계란 가격이 2원 상승함을 체험하였다.

약 5원의 보조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볼때 1,250 만원으로 2원의 계란값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다만 양축가들도 지난 1월 처럼 누가 수출해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 물건 부터 수출해서 제 값을 받는데 협조하는 정신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 1억원 정도의 안정 기금을 모아 약 1천만개 정도를 수출해서 하루 빨리 생산비 선으로 계란값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제 채란업계에 자금을 더 공급하여도 받아 들일 수 있는 한계에 와 있으며 소비가 증가 되지 않는 한 불황만 계속될 뿐이다.

그렇다고 기왕의 외상 사료대 회수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월까지 계속될 경우에도 후보계 육성도 문제려니와 산란계 수수의 감소도 그 후에 올 품귀 현상도 우려되어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

더욱이 최근의 EDS 등 질병으로 (별도 좌담회 기사 참조) 더욱 어려움을 겪고있어 이번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1억원의 기금 모집과 장기적 대책으로 다음 몇가지를 제시한다.

채란 양계의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는 오봉국 박사와 박영인 지부장이 본지에 연구발표 하였고 때문에 근본적인 생산조절 공급조절 유통의 합리화 소비자 교육, 안정기금, 전달기구 등에 관해서는 재론을 피하고 우선 시행 가능한 다음 몇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축산물도 이제까지의 부식의 개념에서 종합적인 식량 정책으로 국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

여 주기를 바란다.

둘째 양계 분야만은 국제시세와의 가격차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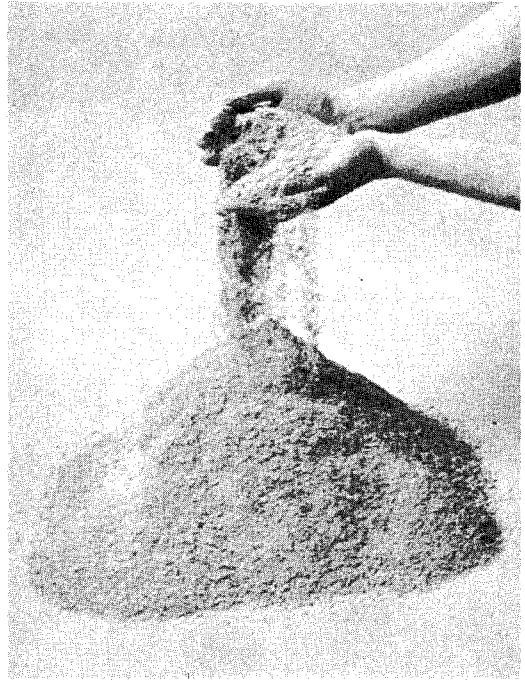
양축가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양계산업의 체질 강화로 양축가 자신이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이다.

1원 계란값을 더 받기 위한 노력보다도 1원 생산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사료 곡물을 비롯한 원료사료 도입제도 등의 개선과 시장기능 존중으로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사료 개발에 노력하여 국제 시세에 접근해 나가야 되겠다.

새끼 계란이나 닭고기의 규격을 통일하고 이를 표시하고 소비자 교육을 계속하고 닭고기와 계란의 품질을 높이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인식 시켜야 되겠다.

네째 외식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우리는 착안하여 소비자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욕구와 관심에 우리는 항상 민감하여 여기에 정확히 대처하여 나가야 되겠다.

소비자를 외면한 생산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양계장을 정리하여도 부



채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닭을 처분할 수 없는 울고싶은 양계업자와 자의반 타의반으로 양축가와 共生共死의 운명에선 사료공장의 지속적인 어쩔 수 없는 지원으로 업계 모두가 더욱 깊은 곳에 빠져 가고있다. 적극적인 불황타개의 방법이 아쉽다.

정확하고 신속한

## 시세엽서

1년분 정기구독 5,000원

발행처 : 대한양계협회

지도조사부 (22-3571~2)